

# 왕도와 패도

지두환

국민대 교수 · 한문학

제작년에 어느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식 논술고사를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찾을 수 없는가” 하고 물어와서 “책문 대책이라는 과거시험 문제와 대답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를 책으로 만들자 하여, 문집에서 자료를 찾고 번역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역주를 하면서, 2년여 작업 끝에 《명문 명답으로 읽는 조선과거실록》을 출간하였다. 이렇게 대책을 번역하는 동안 약육강식 논리인 패도(覇道)를 버리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논리인 왕도(王道)를 따랐던 조선시대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 왕도와 패도란 무엇인가. 올바른 원칙이 통하는, 경우가 바른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이기면 된다. 이겨서 잘 살려는 것인데, 사회가 혼란해져도 우선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자연은 어떻게 되든 돈만 벌면 되고 이기면 된다는 것이다.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패도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혼란해져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약자를 위하여 장애자를 위하여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도 많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이치에 맞도록 풀어나가면서 이상사회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것이 왕도다. 이익보다는 원칙과 도리를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요사이엔 경쟁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한다. 권력과 돈이라는 세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원칙과 도리보다는 세(勢)를 중시하고 약육강식 논리를 중시한다. 운전할 때 빨리만 가면 되고, 공부할 때 1등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지옥이 생기고 주차난이 일어나고 과외가 성행하고 사교육비 문제가 등장한다.

미풍양속은 도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살면 오랑캐 사회가 된다.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불안한 사회에서 혼자서 잘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여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보다는 이상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출세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조선시대는 선비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선비정신이 생겨났고, 이를 백성들이 본받아 미풍양속이 생겼던 것이다.

이익만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였다. 올바른 것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였다. 왕권(王權)이나 신권(臣權)이나,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도나 패도나 더 중요하다. 호화저택에서 잘 사는 것보다 경우에 맞게 사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 무조건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치지도자부터 왕도를 견고 왕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권모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뇌물을 받고 정책이 바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

표지 인터뷰	2	'사람됨' 길러낸 지성의 역사 〈대학사〉 펴낸 이광주 교수
출판인 칼럼	3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 임성규
초점	4	세계 최대 북클럽 국내 진출로 지각변동
기획취재	6	사이버서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영풍·종로 등 잇따라 인터넷 서점 개설
얼굴	6	'진술문고' 문 연 홍기성 사장 '씨티문고' 문 연 송영석 사장
문학 시평	8	한말과 기만의 시대, 그리고 환상문학 - 황순재 소비적인 문학 속에 환상문학 논의 본격화
출판 포커스	9	'비전'이 자산이다 - 이중한
출판화제	10	그림으로 읽는 지식의 세계 죽음의 상징을 찾아 떠나는 순례
	12	삶과 정서가 녹아든 무형문화재의 재발견
	13	기업 '인수합병'에 관심 집중
나의 학문과 책읽기	14	첩첩 쌓인 작품들의 언덕 - 김주연 독일문학의 맛에 매료된 세월
책갈피 산책	15	로저 사투의 〈금지된 지식〉을 읽고 - 방현석
시집 서평	16	적막한 시의 여백, 시의 르네상스 - 차창룡 미종기·정호승·최승호·송재환·고진하의 시집을 읽고
서평	18	이문기 〈신라병제사 연구〉 - 이명식 서연호 〈한국 전승연회의 현장연구〉 - 김현선 19 김종길 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 권영민 20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 이왕주 에코 외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 김진엽 21 학술단체협의회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 박노영 22 민승규 외 〈기아와 포식의 세계식량〉 - 이종수 슈나이더 〈실험실 지구〉 - 이도원
컬러 화보	24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 〈한국출판미술대전 1997〉
연재 기획	26	책과 떠나는 여행 ⑩ 90년대 장편소설의 흐름
이 책 그 사람	28	〈가슴으로 오는 새벽〉 펴낸 박시교씨 〈마음을 비우는 지혜〉 펴낸 정민 교수 29 〈1318 미술여행〉 펴낸 김종수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⑫